

지역 매 아리

정읍시, 대학생 점검단 국가안전대진단 참여해

정읍시는 최근 전북과학대학교 건축토목과 교수 2명과 대학생 7명이 참가하는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아파트 건설 공사장 3곳을 돌아다니며 공사현장의 추락·낙하위험 방지설비 관리 상태와 자재 정리정돈, 안전한 통로 확보 상태 등을 점검 점검했다.

특히 30층 고층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피난설비 점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대학생 점검단이 학생들의 시각에서 새로운 위험 요인들을 찾아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학생들에게 안전점검의 중요성도 고취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덕용 교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축토목과 학생들이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점검 전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설명과 점검요령에 대한 사전학습 부족은 향후 개선과제"라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출산장려정책' 지원 안내 포스터 제작 배포

정읍시가 시민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2019 출산장려정책 지원 안내'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포스터에는 올해 시 출산장려 정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총 20개의 지원 정책이 정리되어 있다.

또 출산부터 육아까지 생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담겨져 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출생신고 축하 기념품(은팔찌) 증정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예비맘이나 임신부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지원 정책과 만6~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지원 등도 안내하고 있다.

또 포스터 한쪽에는 전입지원금과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급 등 전입 시 받을 수 있는 13가지의 혜택도 소개되어 있다.

관련해 시는 포스터 600부를 분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관내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들이 그 수가 많고 신청기관이 산발적으로 나뉘어 시민들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포스터에 지원내용의 핵심만 요약해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하고 다양한 지원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식량산업발전 '탄탄대로'

고창군, '식량산업 종합계획' 농림부 최종 승인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위기의 농생명 산업을 살리기 위해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결과 최종 선정 됐다.

"고창군 식량산업 종합계획(2019~2023년)"은 향후 5년을 내다보고 지역 식량산업분야(쌀, 보리, 콩, 고구마, 감자 등)의 체계적 분석과 지원·투자를 통한 농업 비전 마련을 목표로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쌀 전문도정시설, 고구마 가공산업, 잡곡가공산업 등을 중심으로 식량산업 농가를 조직화한다. 또 교육과 가공, 유통을 통해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려는 등 농가의 고소득 창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며 한반도 첫수도의 발원지인 만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로 전 국민이 선호하며 신뢰하는 농산물을 만들겠다는 합찬 포부도 들어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식량산업 종합계획" 농림부 승인을 계기로 농업인 모두가 다함께 잘살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쳐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모든 행정 법 적용 군민 입장에서"

권익현 부안군수, 주요간부회의서 군민 중심 행정 추진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가 모든 행정의 법 적용은 군민 입장에서 판단하는 군민 중심 행정 추진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8일 열린 주요간부회의에서 "군민의 문제를 군민과 괴리된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행정은 180도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률적인 법 적용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법을 활용하는 군민 중심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법만 내세워 민원을 설득하기 보다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정부가 20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며 "부안군 핵심사업들인

공강 마린나시실 조성사업과 위도~식도간 연도교 설치사업, 백산성 동화랜드 조성사업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방향에 맞춰 논리를 개발하고 세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모든 정책은 시의성이 중요하고 주요 추진사항들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현안 발생시 부서간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 드리기 행사 개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정읍시는 보훈정신을 널리 홍보하고 계승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8일, 두 번째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황선우 서부보훈지청장, 광복회장, 기관단체장, 유족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산외면에 거주하는 애국지사 박준승 선생의 후손인 박기수 씨의

자택을 방문해 애국지사 유족을 격려하고 명패를 달아 드렸다.

유 시장은 "독립유공자들의 활동과 희생으로 이뤄낸 독립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의 박준승 선생님의 후손에게 직접 명패를 달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올해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2천131명의 유공자에게 순차적으로 부착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승 선생은 일제강점기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3.1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다. 만세삼창을 외친 뒤 일본경찰에 체포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 간 옥고를 치른 뒤 1927년 3월 29일 62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한편 시는 박준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기념관 착공에 들어갔다. 올해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국가안전대진단 참여 확대 위한 간담회 실시

정읍시가 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유진섭 시장 주재로 다중이용업소 협회 관계자와 국가안전대진단 시인참여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숙박업과 목욕업, 유흥업 관련 각 협회 대표 등 8명과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특히 전기안전공사와 가스, 소방분야 전문가가 간담회에 함께 참

여했다. 이들은 점검항목(시설·전기·가스·소방·보건 5개 분야 30여개 항목)이 가지는 의미와 점검 요령에 대한 설명을 통해 참석자의 이해를 도왔다.

간담회에서는 업소가 스스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출입구 등에 게시하는 안전문과 실천운동 확산방안에 대

한 협조와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점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율점검표와 함께 시장 서한문을 다중이용업소 304곳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교육과 캠페인, 방문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게시하는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난 8일 고창군 축산업체인 (유)태홍축산 이석주 대표의 아들 이재혁씨가 군청을 찾아 '대지등뿔 10톤'을 기부했다.

나눔의 생활화 확산 '앞장'

고창서 돼지등뿔·유기농 달걀 등 이색기부 잇따라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군에서 돼지등뿔 등 이색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고창군민들 사이에서 금전적인 부분 외에도 자신의 것을 기꺼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생활화가 확산되고 있던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지역 축산업체인 (유)태홍축산 이석주 대표의 아들 이재혁씨가 군청을

찾아 '돼지등뿔 10톤'을 기부했다. 앞서 태홍축산 이석주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희망나눔캠페인에 1000만원씩을 기부해 오고 있다.

또 지난 4일에는 김계시동진강나눔동축협 김부호 조합장(부안면 거주)이 고창군 부안면사무소를 찾아 유기농달걀 50편을 기부했다.

기증된 달걀은 부안면 소재 등록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간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희망나눔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 가져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재희)는 최근 착한가게 1호점인 아리카페(대표 최형)와 착한기업 1호점인 유원회사 명성건설(대표 배성열)에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란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게나 기업들이 월임원 이상 정기적인 기부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가게를 말하며, 동참 가게에는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기탁으로 모금된 후원금은 부안읍 복지사각지대 등 어려운 이웃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화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리카페 최형 대표는 "부안을 착한가게 1호점으로 선정되어 정말 기쁘며, 평소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봉사의 마음을 가졌지만 실천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재희 위원장은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솔선하여 착한가게에 동참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착한가게, 착한기업 캠페인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 cartoon bear mascot, and text describing the wine's quality and health benefits. The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찻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There are also several gift set options listed at the bottom.